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 학위논문

#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한 롤즈의 구성주의적 해석

- 『도덕철학사상의』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이 경 희

#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한 롤즈의 구성주의적 해석

- 『도덕철학사상의』를 중심으로-

Rawls'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on Kant's Moral  
Philosophy

:Focusing on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202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이 경 희

#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한 롤즈의 구성주의적 해석

지도교수 이 재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이 경 희

이경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설현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철승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영 (인)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
1.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방법과 범위 .....	5
2. 도덕적 구성주의 .....	7
1)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합리적 직관주의의 문제 .....	9
2)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 .....	13
3) 정치적 구성주의와의 관계 .....	15
3. 정언명령 절차 .....	18
1) 정언명령의 성격 .....	18
2) 정언명령 절차의 4단계 .....	22
3) 정언명령 절차의 역할 .....	24
4. 정언명령의 세 정식 .....	27
1) 제 1정식: 보편법칙의 정식 .....	27
2) 제 2정식: 인간성의 정식 .....	30
2) 제 3정식: 자율성의 정식과 목적의 나라 .....	34

5. 결론 ..... 37

참고문헌 ..... 39

## ABSTRACT

Rawls'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on Kant's Moral  
Philosophy  
:Focusing on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Gyeong Hui Lee

Advisor: Prof. Jaeyeong Lee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awls' interpretation of Kant's moral philosophy based on his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Rawls interpreted Kant's moral philosophy in a constructivist's way. For such work, Rawls uses the method of comparing the rational intuitionism. The moral constructivism is based on autonomy, like the rational intuitionism. And Rawls distinguished his political constructivism from Kant's moral constructivism.

In order to realistically apply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to his procedure of interpretation, Rawls introduces the concept of 'categorical imperative procedure'. It is a procedure for application of the universal law to the moral reality. According to Rawls, the categorical imperative procedure lies as the fact of reason.

He uses the categorical imperative procedure to divide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formula into the formula of the universal law, the formula of



humanity and the formula of autonomy.

Such interpretation of Rawls'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has provided for a procedure of applying Kant's moral philosophy to our diverse specific world of life.

# 1.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존 롤즈(John Rawls)는 현대 정치철학의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론가 중 한 명이다. 롤즈의 견해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1971) 이후 정의와 관련하여 철학적 관심을 환기하고 주요 문제들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1)</sup>

롤즈는 『정의론』에서 현대 입헌 민주주의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당시 정치철학계를 양분하고 있던 공리주의적 입장<sup>2)</sup>과 합리적 직관주의의 입장에 대항할 수 있는 “합당하고도 체계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sup>3)</sup> 그것은 “공정으로서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론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러한 공정한 조건 하에서 사회협동체의 정의의 원칙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정의의 두 원칙은 첫째,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장되고(제1원칙), 둘째, 사회적 최소 수혜자에 대하여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최대한 보장되는(제2원칙) 정의로운 사회의 달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롤즈가 『정의론』에서 피력한 견해는 많은 논쟁을 촉발했으며, 그는 이후의 저술을 통해 자신의 논증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1993)와 『만민법 The Law of Peoples』(1999)은 『정의론』과 함께 롤즈의 3대 주저로 꼽힌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다원주의<sup>4)</sup>를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조건으로 수용하여 『정의론』에서 전개된 논증들을 대폭 수정한다. 그는 『정의론』이 도덕철학의 영역과 정치철학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결과물로 정립된 “질서정연한 사회(a well-ordered society)” 개념이 비현

1) 아마르티아 센, 이규원 옮김,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 날개, 2019, 59-60쪽.

2) 흄(D.Hume), 스미스(A.Smith), 에지워드(F.Y.Edgeworth), 시즈윅(H.Sidgwick) 등을 일컫는다.

3)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19, 26쪽. (이하 『정의론』으로 표기함.)

4) 정확한 표현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이다.

실적이라는 문제인식과 관련된다. 즉, 롤즈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치적·도덕적·철학적·종교적 관점들까지도 포함하는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doctrine)들로 이루어지는 다원성”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일련의 포괄적 교리들에 대하여 어쩌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관점만이 우선성을 지니고 사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를 『정의론』은 효과적으로 논증하지 못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의론』의 방식처럼 포괄적 교리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대신,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다.<sup>6)</sup> 다음으로, 『정의론』 및 『정치적 자유주의』를 비롯해 롤즈 정치철학 전체를 꿰뚫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만민법』에서 국제관계에까지 확장된다. 즉,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목적이 국내 사회에서 자유적 사회의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것이었다면, 『만민법』은 “만민의 사회(Society of Peoples)”<sup>7)</sup>에서 자유적 사회의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요컨대 롤즈는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인 현실을 전제로 하여 자유주의적 정치관이 실현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롤즈의 논의는 정의라는 주제를 주된 논쟁거리로 부각시킴으로써 옳음의 문제를 현대 정치철학의 무대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롤즈 본인의 언급처럼 롤즈의 정치철학은 그 뿌리를 로크(Locke), 루소(Rousseau), 칸트(Kant)를 위시한 사회계약론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이론적 특성은 “지극히 칸트적(highly Kantian)”<sup>8)</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롤즈의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원초적 입장, 도덕적 인격관 및 사회관 등의 개념에 칸트의 도덕·정치철학에 대한 롤즈의 해석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sup>9)</sup> 나아가,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도덕철학과 정치철

5) 따라서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제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및 도덕적 교리들로 심원하게 나누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상호간에 안정된 정의로운 사회를 상당기간 동안 지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심원하게 상반되지만 그러나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이 함께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 모두가 입헌적 정체의 정치적 정의관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중첩적 합의의 지지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정치관의 구조와 내용은 무엇인가?”(존 롤즈, 장동진 옮김,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16, 23쪽. (이하 『정치적 자유주의』로 표기함.))

6) 같은 책, 38쪽, 참조.

7) 존 롤즈, 장동진 외 옮김, 『만민법』, 동명사, 2019, 23쪽. (이하 『만민법』으로 표기함.)

8) 『정의론』, 26쪽.

9) 이종일, 「롤즈 정의론에서의 ‘칸트적 해석’」, 『사회계약론』, 한국사회·윤리연구회편, 연구철학

학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원칙들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치적 자유주의를 정치적 구성주의로 분류하는 한편, 칸트의 도덕·정치철학을 도덕적 구성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롤즈는 전자의 유형을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이 “적합한 구성절차를 통하여 창출”된 결과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자유주의는 ‘진리’가 아니라, “적합한 구성절차를 통하여 창출”된 합당한(reasonable) 원칙들과 관련된다.<sup>10)</sup> 후자의 유형은 “정의의 의무와 덕의 의무에 내용을 부여하는 특수한 정언 명령들이 구성의 절차(정언명령 절차)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간주”<sup>11)</sup>된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를 도덕적 구성주의로 분류하는 롤즈의 논의를 참조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롤즈의 하버드대학교 윤리학 수업 강의록을 엮어 편찬한 『도덕철학사 강의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2000)에는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한 롤즈의 해석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sup>12)</sup> 롤즈는 이 일련의 강의에서 “칸트 도덕철학의 더 특징적인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합치하는 지를 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마련하는 것”<sup>13)</sup>을 목적으로 삼았다. 앞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롤즈는 도덕적 구성주의를 법과 도덕의 내용이 일정한 구성절차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학적 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롤즈는 칸트의 경우와 관련하여 이러한 구성절차를 정언명령 절차(Categorical imperative Procedure; CI 절차)라고 명명한다.<sup>14)</sup> 그리고 이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절차주의적”<sup>15)</sup>으로 해석하는 롤즈의 독특한 견해를 반영한다. 롤즈의 논의에 따르면 CI 절차는 정언명령이 구체적인 상황·조건 속에서 적용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는 CI 절차를 탐구하는 것은 도덕적 구성주의로서 “칸트의 견해를 특징짓는 주제와 특질을 정교화하고 의미를 부여”<sup>16)</sup>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정언명령 및 (그것의 적용 절차로서) CI 절차에 관한 롤즈의 논의를 이해하는 작업은 롤즈의 도덕적 구성주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철학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 현실사, 1993, 208-247쪽 참조.

10) 『정치적 자유주의』, 26-27쪽 참조.

11) 존 롤즈, 김은희 옮김, 『도덕철학사강의』, 이학사, 2020, 368쪽.(이하 『도덕철학사강의』로 표기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가 번역문을 수정해서 인용함.)

12) 같은 책, 특히 칸트와 관련된 부분은 229-488쪽.

13) 같은 책, 259쪽.

14) 같은 책, 259-261쪽 참조.

15) 같은 책, 572쪽.

16) 같은 책, 261쪽.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칸트 도덕철학에 대한 롤즈의 해석으로서 도덕적 구성주의의 특성, 둘째 도덕적 구성주의의 요소들로서 정언명령 절차 개념, 셋째 정언명령의 세 정식에 관한 롤즈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롤즈의 『도덕철학사 강의』를 주 연구 텍스트로 삼고 분석할 것이다. 칸트 도덕철학에 대한 롤즈의 해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서윤발은 「J.롤즈의 칸트적 해석에 대하여」 17)에서 롤즈가 『정의론』에서 정의의 두 원칙의 근거를 법이론이 아닌 덕이론에 둔다는 점과 도덕의 기준을 자율성이 아닌 이타적 합리성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의론』이 실패한 원인을 밝힌다.

홍성우는 「도덕원칙에 관한 롤즈의 정치적 구성방법과 그 특징들」 18)에서 롤즈의 칸트 윤리학 해석이 형이상학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브링크Brink를 포함한 여러 비판가들의 주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롤즈가 그것에 대한 반론을 위하여 합리적 직관주의,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 자신의 정치적 구성주의의 관점 차이를 비교·고찰하여 도덕적 구성주의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핀다.

노영란은 「롤즈 이후의 칸트적 구성주의」 19)에서 롤즈가 도덕적 구성주의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롤즈 이후의 구성주의자들-힐(T. E. Hill, Jr), 오닐(O. O'Neill), 코스가드(C. M. Korsgaard)-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구성주의 이론들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다.

맹주만은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20)에서 칸트적 구성주의와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라는 표현을 구분하며 전자는 롤즈가 칸트의 도덕이론에 절차적 해석을 가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롤즈가 칸트의 도덕이론을 반실재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칸트의 실천철학을 행위자들과 도덕적 합의라는 실천적 합리성의 한 모델로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김은희는 「롤즈의 해석은 칸트 윤리학을 왜곡하는가」 21)에서 롤즈가 칸트 해석

17) 서윤발, 「J. 롤즈의 칸트적 해석에 대하여」, 『철학논총』, 69집, 2012:187-206.

18) 홍성우, 「도덕원칙에 관한 롤즈의 정치적 구성방법과 그 특징들」, 『사회사상연구』 6집, 1996:75-105.

19) 노영란, 「롤즈 이후의 칸트적 구성주의」, 『윤리연구』, 1집 106호, 2016:35-62.

20) 맹주만,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칸트연구』 20집, 2007:117-150.

21) 김은희, 「롤즈의 해석은 칸트 윤리학을 왜곡하는가」, 『철학연구』, 118호, 2017 :143-175.

가로서 저평가되었던 이유를 롤즈의 논저가 적었고 그의 정치철학에서 칸트적이라고 불리는 생각들을 강하게 피력하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도덕철학사상의』를 중심으로 롤즈에 대한 비판들에 답변을 함으로써 롤즈가 칸트의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전시키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 롤즈가 직접 하버드에서 강의한 강의록을 묶어 편찬한 『도덕철학사상의』를 주 연구 텍스트로 삼아 롤즈가 칸트의 도덕철학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였는지 고찰할 것이다.

본 논문은 롤즈가 칸트의 도덕철학을 구성적으로 해석한 것을 탐구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자한다

2장의 1절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합리적 직관주의의 한계와 구성주의의 의의를 밝힌다. 2절에서는 롤즈가 해석한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의 목적과 그 내용을 서술한다. 3절에서는 정치적 구성주의는 롤즈가 전면적으로 내세운 자신의 정치관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옹호하기위하여 사용한 개념임을 밝히고, 도덕적 구성주의와의 구분을 통해 논지를 명확히 한다.

3장의 1절에서는 칸트 도덕철학의 정언명령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고, 롤즈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해석했는지 서술한다. 2절에서는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한 롤즈의 해석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정언명령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3절에서는 정언명령 절차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며, 롤즈가 정언명령을 절차적 형식으로 해석한 것의 의의를 밝힌다.

4장의 1절에서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정식들 중 롤즈가 해석한 보편법칙의 정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2절에서는 인간성의 정식에 관해 고찰하며 롤즈가 해석한 칸트의 인간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자율성의 정식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성의 통일성 개념을 롤즈가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설명하고, 롤즈의 시각으로 해석한 칸트의 목적의 나라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논문을 요약하며 롤즈가 구성주의적으로 해석한 칸트의 도덕철학에 비추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도덕이란 무엇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 2. 도덕적 구성주의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의의 원칙들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구성주의의 관점을 취한다.<sup>22)</sup> 『정의론』과 달리 롤즈는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합리적 직관주의 및 도덕적 구성주의와 대조하는 전략을 택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칸트의 정치철학 및 도덕철학을 도덕적 구성주의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롤즈의 견해에 따라 칸트의 이론을 도덕적 구성주의로 명명하고, 그 특성을 합리적 직관주의 및 정치적 구성주의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롤즈의 표현에 따르면 구성주의적 관점의 발상은 “절차적인 표현장치(a procedural representation)를 만드는 것이다. 이 관점은 그 장치를 통해 가능한 올바른 추론의 모든 기준들—수학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을 결합하고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3)</sup> 여기서 가능한 모든 관련 기준이라는 표현은 절차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열거하든지 최종적일 수 없다는 롤즈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성주의에서 항상 비판적 반성의 자세로 검토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도덕관, 수학, 정치관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구성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절차적 표현장치의 합당함과 합리성이 그로인한 판단의 올바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합당성과 합리성 개념은 롤즈의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롤즈는 칸트의 철학에서 ‘이성적(vernünftig)’이라 말은 “합리적(rational)’이라는 개념과 ‘합당한(reasonable)’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하였다.<sup>24)</sup> 롤즈에 따르면 합당한 것은 협동체계에 필요한 요소이며, 상호성의 한 개념이다.<sup>25)</sup> 상호성의 개념은

22) 롤즈는 자유주의의 정의관이 진리가 아니라 합당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의 표명에 국한하는 보다 제한적 관점의 정치관”으로서 그것의 공적인 정당화 근거 또한 포함한다. 둘째, 정치적 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실천이성의 원칙들, 그리고 실천이성의 관점들로서 사회관 및 인간관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배경을 지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는 곧 정치적 구성주의(political constructivism)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치적 정의의 원칙들이 일정한 구성절차에 따른 결과물임을 제안하고 있다.(『정치적 자유주의』, 26쪽 참조)

23) 『정치적 자유주의』, 209쪽.

24) 『도덕철학사상의』, 262쪽 참조. (이에 관해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140-148쪽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공평성의 개념과 상호 이익의 개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공평성은 이타적인 것이고 상호 이익은 어떤 사람의 현재 입장이나 가능한 상황에서 모두가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합당하다는 것은 공적인 개념이 된다. 합리적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증진한다는 뜻이며, 합당하다는 개념은 ‘현명하다(judicious)’는 뜻으로 타인의 논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고려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합리성은 판단과 숙고의 능력을 가진 개별적인 단일 행위자가 고유한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개념에는 공정한 협동에 참여하는 것과 평등한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에 관여하는 도덕적 감수성은 결여되어 있다.<sup>27)</sup> 칸트의 도덕철학에 있어서 도덕적 감수성의 심리적 토대는 의무개념에서 나온다. 도덕적 성향은 정신의 자연적 성향이기 때문에 습득할 의무는 없지만 그것의 자각은 도덕법칙과 도덕법칙이 감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감정은 순수실천이성을 통해 생동한다. 또한 롤즈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동정심도 이미 내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자비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중 하나이다. 이 의무는 인간성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공적이지 않다. 롤즈에 따르면 구성주의는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반성에 의해 올바른 절차가 생겨난다.<sup>28)</sup>

---

25) 『정치적 자유주의』, 142쪽.

26) 같은 곳.

27) 같은 책, 143-144쪽 참조.

28) 『정치적 자유주의』, 202쪽 참조.

## 1)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합리적 직관주의의 문제

롤즈는 도덕적 구성주의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클라크(S. Clarke), 프라이스(R. Price), 시즈윅(H. Sidwick), 그리고 라이프니츠(G. W. Leibniz) 등의 합리적 직관주의 이론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롤즈는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완전주의를 합리적 직관주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적 완전주의의 원리에 따라 기독교 신앙과 이성적 신앙의 양립 가능성을 논증하고자 하며, 신의 존재 증명의 결과로서 그 신은 도덕적 필연성으로부터 모든 가능세계 중 최선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신앙의 교리로 받아들인다.<sup>29)</sup> 전지전능한 신은 가능한 세계 중 가장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상정 가능한 법칙성 중 가장 단순하고 동시에 현상에서 가장 풍부한 세계를 창조한다. 그는 신의 완전성에 의거하여 신이 만든 세계의 완전성을 도출해낸다.<sup>30)</sup> 가능세계 중 최선의 세계를 명시하는 완전성<sup>31)</sup>의 원칙은 영원한 참이고, 이러한 개념은 신의 이성 안에 놓여있는 것으로서 신의 의지에 선행하여 있다. 특히, 롤즈는 사회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관해 라이프니츠와 칸트를 비교한다. 즉, 라이프니츠는 “사물들(things)의 가장 완전한 국가”가 예정조화에 따라 주어지는 사물들의 질서에 의해 완전해진다고 하는데, 이는 도덕법칙에 따라 예지계의 형식이 감성계에 반영된다는 칸트의 논의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sup>32)</sup>

클라크는 사물들 사이에 필연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전제하며,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면 어떤 행위의 적합성 여부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여 사물들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본성(본질)을 파악하며, 그 본성들은 어떤 관계를 맺는다.<sup>33)</sup> 그리고 신은 창조자로서 합리적 피조물인 인간의 불행보다는 행복은 더 바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 사물의 본질과 상황에서 나

29) 『도덕철학사강의』, 178쪽.

30) 같은 책, 180-181쪽 참조.

31) 완전주의적 가치를 명시하는 제 1원칙은 2개 이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존재한다. 그러한 균형은 신만이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완전성이란 완전한 존재의 완전성이다. 이를테면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인 신에 대한 개념이 이에 포함되는데 지혜, 선, 정의와 같은 도덕적 완전성,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의 개념, 필연적인 실존 등과 같은 완전성 개념의 목록도 이에 포함된다.(같은 책, 182-188쪽 참조.)

32) 같은 책, 178-179쪽 참조.

33) 클라크에 있어서 적합성 개념을 “비교적인 적합성”으로 규정한다. 즉 어떤 종류의 상황 속에서 이 종류의 행위는 저 종류의 행위보다 더 적합하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행위A보다 행위B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같은 책, 126-128쪽 참조.)

오는 적합성의 관계는 신의 의지에 가해지는 지시 사항이며, 이는 합리적인 존재의 이성 에 의해 인식된다.<sup>34)</sup> 클라크는 수학적, 기하학적 인식과 도덕적 인식의 전개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 클라크는 그르게 행동하는 것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롤즈는 이러한 클라크의 주장을 도덕적 사고를 이론이성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클라크에게 도덕적 질서와 관계는 우리의 실천이성과 그 실천이성에서 도출된 인간관, 사회관에 앞서있으며, 독립적인 것으로 해석된다.<sup>35)</sup>

이상 롤즈가 합리적 직관주의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롤즈에 따르면 합리적 직관주의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합리적 직관주의에서 도덕의 제1원칙과 그 판단은 독립된 도덕적 가치질서에 관해 참된 내용을 언명하는 진술이며, 이것은 이론이성(theoretical reason)의 인식대상이다.<sup>36)</sup> 그것은 인간의 현실적, 정신적 활동성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성의 활동성에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덕의 제1원칙은 이론이성에 의해 인지가 가능하며, 도덕적 지식은 도덕의 제1원칙과 지각,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다.<sup>37)</sup>

둘째, 빈약한(sparse) 인간관을 전제로 한다.<sup>38)</sup> 이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특성 과도 연관된다. 즉, 제1원칙들의 내용은 이미 주어졌으므로 더 정교한 도덕심리학 이나 구성주의적인 도덕적 입론의 형식, 구조, 그리고 내용을 규정하는 더 완전한 인간관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sup>39)</sup> 이처럼 합리적 직관주의의 인격은 단순히 ‘인식자’로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제1원칙의 내용은 이미 인간의 이성 과는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고 인격은 그 원칙을 인식하여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만 갖추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격이 제1원칙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 행동할 욕구가 나온다는 점만 명시한다. 따라서 합리적 직관주의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한 도덕 심리학이 필요 없을 뿐더러 구성주의적 도

34) 같은 책, 128쪽 참조.

35) 같은 책, 133쪽 참조.

36) 『정치적 자유주의』, 196쪽 참조.

37) 같은 곳 참조.

38) 같은 곳 참조.

39) 홍성우, 「도덕원칙에 관한 롤즈의 정치적 구성방법과 그 특징들」, 『사회사상연구』, 6집, 1996, 81쪽 참조.

덕관도 요구되지 않는다.

셋째, 합리적 직관주의는 전통적인 진리 개념을 전제한다.<sup>40)</sup> 즉, 합리적 직관주의는 도덕적 판단의 참이 독립적인 도덕적 가치질서에 대응할 때 주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들을 지닌 합리적 직관주의는 칸트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타율적인 도덕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칸트의 자율성은 인간 의지의 속성으로서 자기 입법적인 성격을 의미한다.<sup>41)</sup> 즉 자신의 도덕법칙의 원리를 외부 요인이 아닌 인간의 실천이성이성의 원리에서 도출해낸다는 것이 그의 자율성의 핵심 내용이다. 롤즈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참고하여 합리적 직관주의의 타율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칸트의 자율성 이념은 정의의 의무와 덕의 의무의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의 형태를 규정하는 그런 관점에 선행하며 독립적인 도덕적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한다.”<sup>42)</sup> 합리적 직관주의가 가정하는 ‘독립적인 도덕적 가치질서’란,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갖는 인격에 대한 관점과 사회에 대한 관점 이외의 것이다.<sup>43)</sup> 따라서 이러한 외부의 기준에 의거하는 합리적 직관주의의 도덕철학은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적이라고 롤즈는 주장한다. 칸트의 도덕철학에 있어서 도덕의 원리에 대한 두 가지 물음, 즉 모든 도덕적 행위의 최고의(제1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 맞게 행위할 수 있는 최종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전자에 대해서는 정언명령,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지의 자율성, 즉 자기 입법적 능력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sup>44)</sup>

롤즈는 이러한 칸트의 자율성 개념에 주목하여 칸트를 해석하였다. 하지만 도덕적 구성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합리적 직관주의는 모두 타율성에 입각한 논증을 하고 있다.<sup>45)</sup> 인격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에 따라 규정되는 (그리고 나아가 구

40) 『정치적 자유주의』, 196쪽 참조.

41) 『윤리형이상학 정초』, 184쪽 참조.

42) 『도덕철학사상의』, 367쪽.

43) 같은 곳.

44) 서현경, 「J. Rawls 정의론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73쪽 참조.

45) 예컨대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적 완전주의는 창조의 윤리로서 전지전능한 신의 완전성에서 우리 세계의 완전성의 근거를 찾는다. 또한 인간을 자유롭고 지적인 영혼으로서 신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삶의 가능성을 도출한다. 이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외부적 요인에서 도덕의 제1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타율성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직관주의도 도덕질서가 인간과 독립되어 있고 인간에 선행한다는 특징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제1원칙은 선험적 종합명제이며 그것은 이성 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특징도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롤즈에 따르면 이것 또한 칸트적 자율성의 관점에서는 타율성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천이성의 원리와는 다른 외적 요인으로부터 도덕적 원리의 근거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 질서를 인간 스스로 구성하여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독립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상정했기 때문이다.

성되는) 도덕적, 사회적 질서를 가정하는 것은 롤즈가 도입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칸트의 자율성 개념은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재해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 직관주의는 롤즈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율성의 한 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

## 2)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

롤즈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칸트의 도덕철학을 도덕적 구성주의라고 명명한다. 그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도덕적 구성주의로 해석하기 위해서 “정언명령 절차 (Categorical imperative procedure); CI절차”<sup>46)</sup>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 “CI절차” 개념은 칸트의 정언명령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절차적 구조를 일컫는다. 롤즈는 이 정언명령 절차가 합당한 도덕이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서 완전히 적합하진 않지만 교훈적이며, 칸트의 생각을 정교화하고 표현할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말한다.<sup>47)</sup>

CI절차는 사회세계의 상황 속에 놓인 인간 존재인 우리에게 정언명령이 적용될 때 보다 현실적인 모델로 작용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말하자면 정언명령은 CI절차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 절차의 형태와 구조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실천이성의 두 능력을 반영한다.<sup>48)</sup> CI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하여는 앞으로 살펴보고 이 절에서는 롤즈가 해석한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합리적 직관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칸트의 인격관은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롤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상정한다. 이러한 이성의 원리는 인간의 인격 안에 내제되어있다. 또한 인격은 자유롭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이나 여타 다른 자연적 존재와는 구별되는 도덕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동물과 같이 본성에만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본성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에서 인간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9)</sup>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인격은 평등하다는 특징으로부터 서로를 목적 그 자체로 대할 수 있게 하는 정언명령의 정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

46) 『도덕철학사상의』, 260쪽.

47) 같은 책, 261쪽

48) 같은 책, 368쪽.

49)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롤즈가 칸트의 도덕철학 해석에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이다. 적극적 자유 개념은 인간의 선택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덕법칙을 스스로 입법하는 자기입법성의 능력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후반부에 설명되기 때문에 이 각주에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만 간략히 설명한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고 합당한 인격관은 도덕적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적 구성주의에서는 인간의 실천이성의 원리가 도덕 법칙의 원리를 구성하게 된다. 즉 구성의 토대가 된다. CI절차는 실천이성의 원리를 드러내고 그 형태와 구조가 목적의 나라의 도덕적 지침의 공적 역할에 관한, 인격에 관한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격의 평등성으로 인해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한다는 칸트의 관점에 의거할 때 인간들의 공동체는 목적들의 공동체이다. 그 목적들이 모여서 체계적인 공동체를 만든 것이 곧 목적의 나라이다. 롤즈에 따르면 이 목적의 나라에서 인간은 자신이 따라야할 도덕적 지침인 도덕법칙을 스스로 수립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준칙을 도덕법칙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이 바로 CI절차인 것이다.

도덕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이론의 내용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CI절차를 통과한 특수한 정언명령들(이후에 이 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된다.) 전체가 구성 절차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50)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CI절차 자체는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사실로서 단순히 놓여있다는 점이다. 롤즈는 CI절차를 절차적으로 칸트의 생각을 정리하려는 시도로써 제시한다. 그리고 칸트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순수 실천이성과 경험적 실천이성의 요건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CI절차는 도덕법칙을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구성주의에서 인격관과 사회관은 목적의 나라의 입법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각각의 인격들에 대한 관점과 그 인격들이 이론 사회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칸트의 구성주의의 토대를 이룬다.51) 그렇다고 해서 인격관과 사회관은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관점들은 우리의 도덕적 경험과 반성으로부터 나오며, CI절차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도덕법칙에 근거해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52)

50) 『도덕철학사강의』, 371쪽 참조.

51) 같은 책, 372쪽 참조.

52) 같은 책, 362쪽 참조.



### 3) 정치적 구성주의와의 관계

롤즈는 정치관, 정의의 원칙 등을 인간의 실천이성의 관점에서 도출해내며, 사회적 협동 개념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공정한 협동조건을 고려하여 상호이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 스스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생각한다.<sup>53)</sup>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입헌체제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어떤 교리나 정의관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정치관을 지지하는 식으로 중첩적 합의를 이룬다.<sup>54)</sup> 즉 롤즈는 공정한 사회적 협동의 조건을 ‘공정하게 위치한 자유로운 상태인 시민의 대표들이 평등한 상태로 모여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구성주의적 견해를 채택하는 것이다.<sup>55)</sup> 롤즈는 이렇게 각 개인이 정치적 교리나 가치들을 채택할 때에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렌만(J. Lenman)과 셰머(Y. Shever)의 분류에 따르면, 규범적 영역 일부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규범적 영역 전체를 구성하는가에 따라 부분적 구성주의(local constructivism)와 전면적 구성주의(global constructivism)로 나뉘지는데, 정의의 영역에 대해서만 구성주의적 설명을 제공하는 정치적 구성주의는 부분적 구성주의에 속한다.<sup>56)</sup>

롤즈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에 관련된 요소들을 자신의 정치철학에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롤즈는 도덕철학의 관점이 아닌 정치철학의 관점으로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며,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도덕적 구성주의와 정치적 구성주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롤즈가 해석한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롤즈의 정치철학 개념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치적 구성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도덕적 구성주의는 인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교리를 제시하는 것에 비하여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치관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정치적 교리에 한하여 이야기한다. 즉, 정치적 구성주의는 제한된 정치적 목적에 적합한 객관성의 기초만을 제공한다.<sup>57)</sup> 요컨

53) 『정치적 자유주의』, 203쪽.

54) 롤즈는 이것을 중첩적 합의와 잠정적 타협의 개념을 도입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이에 관한 내용은 같은 책, 246쪽~296쪽 참조)

55) 같은책, 203쪽.

56) 노영란, 앞의 논문, 39-40 참조.

57) 롤즈는 객관성의 관점의 본질적인 다섯 가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정치적 자유주



대, 정치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구성주의는 도덕적 교리중 하나이며 그것을 포괄하는 정치관을 내세우려하는 것이 정치적 구성주의이다.

또한 자율성 개념의 해석에서도 두 관점은 차이를 나타낸다.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에서 정치적 견해의 자율성은 그것이 정치적 사회관과 인격관이 결합된 실천이성으로부터 도출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신법이나 독립적 도덕질서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정치적 견해는 교리적 타율성에서 비롯되는 데 반해, 정치적 구성주의의 원리는 도덕적 구성주의에서 고찰되었던 자율성 개념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에서는 도덕적, 정치적 가치질서 자체가 실천이성의 원칙이나 관념에 의해 구성되는 것에 비하여 정치적 구성주의에서는 그러한 접근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sup>58)</sup>

또 다른 차이점은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가 인격관과 사회관의 기본적 내용들의 근거로서 초월적 관념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반해 정치적 구성주의는 초월적 관념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교리들을 거부한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기본적 구성개념은 특정한 정치적 근본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59)</sup>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회에서 이 특정한 정치적 근본 개념들을 사용하여 모든 이가 자유로이 추론하여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의 중첩적 합의점을 찾아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것이 정치적 구성주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한다.<sup>60)</sup> 서로 다른 교리, 도덕, 정의, 종교, 성별, 국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도덕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각 개인이나 각 공동체들의 관심과 가치관이 다름에도 1인 1투표제와 같은 형식아래서 하나의 정의관을 선별하여야 하는데 그 정의관은 서로 다름을 포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그것들의 합의점을 ‘중첩적 합의’라고 부른다. 공적이성을 사용하여 여러 교리들 간의 중첩적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적 구성주의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롤즈의 관점에서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의 목적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을 포함하는 이성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롤즈에 따르면 칸트는 자연에 대한 지식과 (도덕법칙과 관련한)자유에 대한 지식의 양립가능성을 해명해 내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치적 구성주의와 도덕적 구성주의는 그 이론의 목적에

---

의』, 220~222쪽 참조.

58) 같은 책, 206-207쪽 참조.

59) 같은 책, 207쪽.

60) 같은 책, 207-209쪽 참조.

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 3. 정언명령 절차

#### 1) 정언명령의 성격

정언명령은 개인 행위의 주관적 원리인 준칙과 보편적·객관적 원칙인 도덕법칙의 관계를 지시 명령한다. 준칙은 주관의 무지나 경향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보편법칙은 보편성과 필연성, 객관성의 조건을 가지고 정당화되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들에게 통용된다.

칸트는 최고선의 조건을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선이어야 한다. 셋째, 행위의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선이 될 수 있다.<sup>61)</sup>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선을 의욕하는 것이 선의지 개념이다. 칸트가 생각했을 때 자연이 인간을 창조한 본래 목적은 선의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칸트는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선의지뿐이다.”<sup>62)</sup>라고 주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이성과 의지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경향성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의지를 계발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는 의무 개념을 도입하여 선의지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렇다고 의무와 선의지가 동일한 범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선의지는 ‘어떤 주관적 제한과 장애’를 유보한 상태에서만 의무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sup>63)</sup> 또한 이 의무는 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 행위하기 쉬운 유한한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의지는 꼭 따라야만 하는 의무 개념으로 ‘~행위하라!’라는 식의 행위에 대한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중요한 점은 정언명령의 무조건성 내지 절대성이다. 가언명령이 행위의 조건적, 상대적 필연성을 지시 명령하는 반면, 정언명령은 행위의 무조건적, 절대적 필연성

61) 이석호, 『근세·현대 서양윤리사상사』, 철학과 현실사, 2010, 218쪽 참조.

62) 『윤리형이상학 정초』, 123쪽.

63) 오토프리트 회페, 『임마누엘 칸트』, 이상헌 옮김, 문예출판사, 1997, 215쪽 참조.

을 지시 명령한다. 가언명령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숙련의 규칙으로서, 가능한 목적과 관련된 행위를 지시 명령한다. 여기서 명령의 목적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현실적이며 필연적이지 않다. 다른 하나는 영리함의 충고로서, 인간의 현실적인 목적인 행복의 달성과 관련된 명령이다. 이는 행복이라는 보편적 목적과 관련되므로 마치 정언명령과 유사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까지나 ‘나의 행복’으로서 주관적이며 따라서 우연적인 조건에서만 필연성을 띤다. 그러므로 이 또한 무조건적인 행위의 필연성을 지시 명령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언명령은 ‘네가 X를 바란다면 Y행위를 하라!’라는 조건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명령은 목적으로 행위의 특정한 결과를 전제하며, 따라서 두 명령이 지시 명령하는 행위의 필연성은 조건적으로, 상대적으로만 성립한다.<sup>64)</sup>

한편, 칸트는 가언명령에서 목적에 대한 욕구와 수단에 대한 욕구의 관계가 조건적이며 동시에 분석적이라고 주장한다.<sup>65)</sup> 롤즈는 가언명령의 분석적 성격에 관해 합리성에는 부합하되 합당성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특수한 가언명령도 조건적이다. 즉 그것들은 구체적인 욕구와 경향성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sup>66)</sup>

가언명령과 대조적으로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다. 정언명령은 우리가 정의의 의무에 제한을 받아 채택하지 말아야 할 수단에 대하여 무조건적이다. 또한 덕의 의무에 의해 명시되는 책무적 목적과 관련해 무조건적이다.<sup>67)</sup>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정언명령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 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를 어떤 조건에서 찾지 않고 그 동기를 직접적으로 지시 명령한다. 정언명령은 행위의 질료나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행위가 나오는 원리와 명령의 형식에만 관련이 있다.<sup>68)</sup> 요컨대, 윤리성의 원천과 관련하여 칸트는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에 주목한다.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만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을 지시 명령한다. 그러므로 정언명령에 따르는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언명령은 ‘윤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64) 『윤리 형이상학 정초』, 156-159쪽 참조.

65) 같은 곳 참조.

66) 『도덕철학사강의』, 384쪽 참조.

67) 같은 책, 284쪽 참조.

68) 『윤리형이상학 정초』, 158쪽 참조.

69) 같은 곳 참조.

이렇게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행위의 필연성을 지시 명령하는 정언명령은 칸트에 의하여 몇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정식화되는데, 정식화되는 방식은 일반적인 시각에 따르면 “보편화 정식”, “목적 그 자체 정식”, “자율성 정식”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sup>70)</sup>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의 정식들은 이렇게 복수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도덕법칙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서, 나의 경향성 및 욕구, 그리고 일체의 대상을 도외시한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그리고 실천이성은 이러한 정언명령을 통해 “최상의 법칙수립자로서 자기 자신이 지시 명령하는 권위”<sup>71)</sup>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자기입법적 속성, 즉 자율성의 의미이다.

롤즈는 위와 같은 정언명령, 그리고 칸트의 도덕철학을 자신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이 명령이 내가 정언명령 절차라고 불렀던 것, 즉 간단히 CI 절차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 인간 삶의 통상적 조건에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이 절차는 그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격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태의 도덕법칙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때 인격은 양심과 도덕적 감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욕구와 경향성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욕구와 경향성은 우리가 처한 사회 세계에 특수한 자리를 점하며 자연질서의 상황에 놓인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가진 필요를 반영합니다.<sup>72)</sup>

롤즈는 정언명령을 “절차주의적”<sup>73)</sup>으로 해석한다. 즉, 그는 정언명령이 CI 절차를 통해 합리성과 합당성을 갖춘 존재자로서 인격인 인간의 삶에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롤즈는 ‘도덕법칙’, ‘정언명령’, ‘CI 절차’를 각각 다른 차원에 위치시킨다.<sup>74)</sup> 먼저 도덕법칙은 이성의 이념으로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모든 이성적 존재자, 예컨대 인간뿐만 아니라 신, 천사에게도 적용되는 행위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정언명령은 유한한 존재자로서 도덕법칙을 제약으로서 경험하는 존재자, 예컨대 인간에게 적용된다. 정언명령은 이러한 존재자에게 도덕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방식을 언명한다. 마지막으로, CI 절차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정언명령이 구체적인 상황에

70) 강병호, 「정언명령의 세 주요 정식들의 관계」, 『철학』 120집, 한국철학회, 2014, 56쪽 참조.

71) 『윤리형이상학 정초』, 184쪽.

72) 『도덕철학사강의』, 262쪽.

73) 같은 책, 572쪽.

74) 같은 책, 266쪽 참조.

서, 즉 자연 질서 속의 상황에서 “적용(adaptation)”되는 절차이다.<sup>75)</sup> 롤즈는 이러한 CI 절차가 합리성과 합당성을 갖춘 이성적 존재자가 자신의 준칙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일련의 단계에 대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한편, 롤즈는 정언명령의 정식을 보편법칙의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 그리고 자율성의 정식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정언명령의 세 가지 정식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목적의 나라에 대한 개념화를 정교화할 개념과 원리를 제공”<sup>76)</sup>한다. 이중 첫 번째 정식은 CI 절차에 해당하며, 도덕적 내용의 구성에 있어 절차적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정식들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언명령의 세 가지 정식 각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4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75) 같은 곳.

76) 같은 책, 334쪽.

## 2) 정언명령 절차의 4단계

롤즈는 CI절차를 네 단계로 제시한다. 그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Z하지 않을 경우 나는 Y를 야기하기 위하여 상황 C에서 X를 행해야 한다.  
(여기서 X는 행위이고 Y는 어떤 목표, 사태이다.)
- (2) Z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이는 Y를 야기하기 위하여 상황 C에서 X를 행해야 한다.
- (3) 모든 이는 Y를 야기하기 위하여 마치 자연법칙에 의해 그러한 것처럼(마치 그런 법칙이 자연적 본능에 의해 우리 안에 심어진 것처럼) 상황 C에서 언제나 X를 행해야 한다.
- (4) 우리는 단계 (3)의 자연법칙 같은 것(as-if law of nature)의 방식을 현존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의) 자연법칙에 결합하고 나서 새롭게 결합한 자연법칙의 효과가 스스로 나타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드러나게 될 자연 질서의 모습을 가능한 한 잘 생각해야 한다.<sup>77)</sup>

단계 (1)은 특수한 가언명령(a particular hypothetical imperative)<sup>78)</sup>을 제시한다. 단계 (2)는 특수한 정언명령을 제시하며, 단계 (3)에서 이를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이끌어내고 단계 (4)에서 새로운 자연의 질서로 전환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계 (1)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원리인 준칙이 목표하는 바를 나타낸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의 준칙을 일반화하며 - 롤즈의 표현으로 - “보편적 지침”<sup>79)</sup>을 도출한다. 이러한 보편적 지침은 모든 합리적 존재에게 타당한 객관적 원리로서 적용된다. 단계 (3)에서 보편적 지침이 자연법칙으로 전환된다. 단계 (4)는 단계 (3)에서 제시된 새로운 자연 법칙을 이미 알려진 자연법칙 속에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자연법칙 체계에 의해 결과로 도출되는

77) 같은 책, 268-269쪽.

78) 가언명령과 특수한 가언명령의 구분은 롤즈가 제안하는 것이다. 특수한 가언명령은 행위자의 정황과 이해관계가 주어저 있는 상태에서 원칙들을 충족시킬 때 합리적이다. 합리적 속고의 원칙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 가장 성공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은 대안을 채택하는 것, 가장 포괄적인 목적(이때 각 원칙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우리는 적절한 단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을 추구하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은 순수 실천이성의 적절한 모든 기준을 포함하는 정언명령과 CI 절차의 테스트를 통과한 특수한 정언명령들(단계 (2)의 일반화된 지침들) 전체 사이에 했던 구분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같은 책, 343-344쪽 참조.)

79) 같은 책, 268쪽.

새로운 자연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추정해보는 단계이다. 그것은 단계 (1)에서부터 생겨난 격률이 새로운 하나의 자연법칙으로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자연질서에 어떤 교란이 있게 될 것이며, 첨가된 자연법칙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질서가 안정된 평형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를 살피는 단계이다.<sup>80)</sup> 새로운 자연 질서를 “조정된(adjusted) 사회 세계”<sup>81)</sup>라고 한다.

롤즈는 조정된 평형 사회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는 “공지성의 조건”으로 단계(1)에서 준칙에 의거한 자연법칙 같은 것이 공적으로 인정된다는 가정이다. 둘째는 “영속성의 조건”으로 조정된 사회세계가 마치 평형상태로 추정된 것에 도달했고 그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것처럼 가정하며, 그것이 늘 존재해왔고, 지금과 미래에도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sup>82)</sup>

롤즈는 이렇게 네 단계로 전개되는 CI 절차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보편화정식의 변형으로서 간주되는 자연법칙의 정식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설명한다.<sup>83)</sup> 칸트에 따르면, 자연법칙의 정식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 놓인 행위 주체에게 그 자신의 주관적 행위 원칙—곧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자연법칙과의 유비를 통해 검토할 것을 명령한다.<sup>84)</sup> 롤즈는 이것을 CI 절차로 이해함으로써 행위 주체의 “입법적 의도”가 함축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 자연법칙의 정식은 “우리가 마치 입법적 이성의 힘을 가지며 준칙에 따라 행위함의 조건으로서 이성의 힘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sup>85)</sup>이다.

80) 황경식, 「롤즈에 전해진 칸트의 유산」, 『철학연구』, 1995, 434쪽 참조.

81) 『도덕철학사강의』, 269쪽.

82) 공지성 조건과 영속성 조건에 관해서는 같은 책, 272-273쪽 참조

83) 같은 책, 270쪽 참조.

84) 『윤리형이상학 정초』, 165쪽 참조.

85) 같은 책, 182-183쪽.



### 3) 정언명령 절차의 역할

롤즈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정언명령과 특수한 정언명령들(particular categorical imperatives)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수한 정언명령들은 정언명령 절차 테스트를 통과한 개별적인 것들을 의미하며, 정언명령은 롤즈의 정언명령 절차로 표현되고 칸트에 따르면 여러 정식화들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한 정언명령들은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석된 정언명령이 구성한 산물이다.<sup>86)</sup>

정언명령은 순수 실천이성의 요건들을 정식화했기 때문에 경험적 실천이성과 관련하여 선형적이다. 즉 정언명령과 그것이 도달하는 특수한 정언명령들은 (준칙이 CI 절차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경험적 실천이성의 행사에 선형적 제약을 부여한다. 이러한 제약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격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종합적이다. 또한 그 제약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격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채 그러한 인격에게 부여되기 쉽다. 즉, 분석해서 인격개념에서 제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격에게 바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적이지 않다.<sup>87)</sup>

특수한 정언명령들(CI절차에 의해 산출된 새로운 자연법칙, 특수한 정의의 의무와 덕의 의무)은 선형적이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세계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사용한다. 선형적 종합인 것은 도덕법칙과, 그 도덕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절차적 재현인 CI절차이다.<sup>88)</sup> 그리고 이러한 CI절차는 모든 이가 특수한 정언명령들로부터 행위하는 것을 고려한다. 옳음과 정의에 대한 제1원칙들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자유로운 도덕적 인격을 반영하는 형식과 구조를 CI절차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간관은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제1원칙들이 규정되거나 구성되는 절차는 선형적으로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89)</sup>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도덕법칙, 정언명령, CI절차가 각기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도덕법칙은 이성의 이념으로서 인간

86) 김은희, 앞의 논문, 156쪽 참조.

87) 『도덕철학사강의』, 385쪽 참조.

88) 같은 책, 386~387쪽 참조.

89) 홍성우, 「도덕원칙에 관한 롤즈의 정치적 구성방법과 그 특징들」, 『사회사상연구』, 6집, 1996, 84쪽 참조.

을 포함해 모든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언명령은 도덕 법칙을 제약으로 경험하는 유한한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CI절차는 이러한 정언명령이 우리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 자연 질서속의 우리 상황에 맞게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차의 형태와 구조는 이성의 사실로서 실천 이성 안에 이미 놓여 있다. 도덕법칙과 정언명령 개념은 칸트의 도덕철학의 고유한 개념인데 CI절차 개념은 롤즈가 칸트의 도덕철학을 구성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롤즈의 해석에 따르면, 정언명령 절차는 생활세계적 준칙들의 도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적 기준이 된다.<sup>90)</sup>

나아가, 롤즈가 보기에 도덕적 구성주의에서 현실의 법과 도덕적인 질서의 구성은 CI 절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체계와 관련하여 구성주의적 해석을 내놓는다. “순수 실천이성이 그 자신으로부터 선험적 대상, 즉 목적의 나라를 구성해낸다”.<sup>91)</sup> 또한 목적의 나라에 관하여 “모든 성원이 도덕법칙으로부터 행위할 때 자연 질서 안에 존재하게 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격들의 국가”<sup>92)</sup>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롤즈는 첫 문장의 “그 자신으로부터”라는 구절에 나타난 자신의 해석이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정하고 있다. “정언명령의 세 정식에 의해 제시되는 것인 순수 실천이성은 단계 (1)의 합리적 준칙에 의해 실천이성에 제공된 재료(질료)로부터 자신의 대상을 구성해낸다”.<sup>93)</sup> 이러한 표현의 정정에 암시된 롤즈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점에 관해 롤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가치 질서를 표현한 실질적 원리들은 우리의 실천적 추론에 암시된 관점과 원리로부터 취해진 형태와 구조를 지닌 절차에 의해 구성됩니다.<sup>94)</sup>

위와 같이 롤즈는 칸트에게서 도덕적 가치질서는 CI 절차에 의해서만 구성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구성의 절차적 형식만을 제공하며, 우리의 실천이성 속에 "단순히 놓여있는(laid out)"<sup>95)</sup>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형식적 요소 외

90) 김정주, 「이성의 사실과 도덕적 구성주의의 정당화」, 『칸트연구』, 21집, 2008, 181쪽 참조.

91) 『도덕철학사강의』, 387쪽.

92) 같은 곳.

93) 같은 책, 388쪽

94) 같은 책, 374쪽.

에도, 우리의 실천이성 속에 포함된 관점들, 곧 목적의 나라의 성원으로서 ‘인격에 관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인격들에 의해 형성된 (목적의 나라라는) ‘사회에 관한 관점’이라는 질료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sup>96)</sup> 이들은 CI 절차처럼 실천이성 자체 내에 선형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 경험과 반성”<sup>97)</sup> 으로부터 형성된다. 이렇듯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사회 질서의 구성에서 후자의 요소들 또한 CI 절차만큼 필수적이라고 본다.

위와 같은 정정은 롤즈의 칸트 도덕철학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즉 도덕적 구성주의에 대한 더 충실한 해석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성주의적 관점은 사회질서의 모든 것이 순수 실천이성 자체로부터 구성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덕적 구성주의의 경우로 말하자면, 실천이성에 내재한 CI 절차는 단지 선택 장치, 즉 절차적 형식으로서, 주어진 사회관과 인격관이라는 질료를 재료 삼아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것이다. “순수 실천이성으로서의 우리의 의지는 CI 절차를 통해 그 자신의 선형적 대상, 즉 가능한 목적의 나라의 공적인 도덕적 질서인 그 대상을 구성한다”.<sup>98)</sup>

---

95) 같은 책, 371쪽.

96) 같은 책, 372쪽 참조.

97) 같은 곳.

98) 같은 책, 389쪽.

## 4. 정언명령의 세 정식

### 1) 제 1정식: 보편법칙의 정식

롤즈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세 가지 정식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는 보편법칙의 정식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정식은 롤즈에게서 CI 절차로 해석되며, 세 가지 정식들 사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sup>99)</sup>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sup>100)</sup>

위와 같이 칸트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늘 엄밀한 방법에 따르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하라”와 같은 정언명령의 보편적 정식을 토대로서 취하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칸트의 주장에서 롤즈는 엄밀한 방법의 토대가 정언명령 자체이며, 우리는 필요를 지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CI절차를 통해 자연법칙 정식의 견지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01)</sup> 왜냐하면 CI절차가 엄밀한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법<sup>102)</sup>이기 때문이며, 자연법칙은 우리의 인간적 생활의 일상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정언명령의 이념을 우리의 실제적 상황에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sup>103)</sup> 따라서 롤즈의 구성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준칙을 점검할 때 항상 CI절차를 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롤즈의 해석에 입각하여, 칸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들고 있는 4가지 의무의 사례 중 두 번째, 곧 거짓 약속의 사례에 대하여 CI 절차를 적용해보자.

99) 『윤리형이상학 정초』, 165쪽.

100) 같은 곳.

101) 『도덕철학사상의』, 289쪽 참조.

102) 3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롤즈는 자연법칙의 어법으로 CI절차를 구체화한다.

103) 김정주, 앞의 논문, 181쪽 참조.

단계 (1) : 나는 (내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고, 갚을 의도도 없지만 돈이 필요한) 상황C에서 개인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할 것이다.

단계 (2) : 모든 이가 위에서 언급된 상황C에서 거짓 약속을 할 것이다.

단계(3) : 모든 이는 상황C에서 (마치 자연법칙에 의한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거나 시도한다.

단계(4) : 단계(3)에서의 자연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진) 다른 자연법칙들에 결합하고 결과로 나올 만한 평형상태를 생각하자. 이렇게 조정된 사회세계는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만큼 상황C에서 거짓 약속을 할 수 없게 되는 세계이다.<sup>104)</sup>

롤즈에 따르면 단계(3)의 자연법칙은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가짐은 유효해 보일 수 있다. 어떤 준칙이 자연법칙의 정식의 견지에서 CI절차로 검증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자연법칙 같은 것(as-it-were laws of nature)으로서 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념 테스트에서 드러난 모순이 거짓 약속의 준칙을 기각한다.<sup>105)</sup> 롤즈에 의하면 의도는 어떤 종류의 계획인데, 그 계획에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와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가정되어 있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는 입법적 사회에서 거짓 약속의 준칙을 의도할 수 없게 된다. 롤즈에 따르면 칸트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으로 배우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을 자연법칙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거짓 약속은 텅빈 가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과 그것의 목적은 그 자체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칸트의 네 번째 사례, 곧 무관심의 준칙에 대하여 CI절차를 적용해 보자. 곤궁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지 않는 조정된 사회 세계를 가정하면 공시성의 조건과 영속성의 조건이 유지된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경향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남을 돕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적인 의도와 입법적 의도가

104) 『도덕철학사강의』, 271쪽.

105) 같은 곳.

이렇게 양립하며 모순되는 경우 때문에 롤즈는 CI절차의 의지 테스트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롤즈는 의지 테스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의지의 내용과 우리가 원하는 사회세계를 구체화한다. 그는 “진정한 인간적 필요들(또는 기본적 필요들)”개념<sup>106)</sup>을 사용한다.<sup>107)</sup> 이 개념은 우리의 생리적 욕구와 사고, 판단의 필수적 조건과 더불어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꼭 필요한 요건들을 말한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 필요들을 의지하며 그것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바란다. 그리고 칸트가 말한 “공통 이익의 준칙”의 개념도 이러한 의지 테스트의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서로 돕기 위해 한 거처 안에 결합해 있는 필요 욕구를 지닌 합리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관심의 세계보다 상호보완의 세계가 우리의 진정한 인간적 필요들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8)</sup>

---

106) 이 개념은 『윤리형이상학』에 산재해 있지만 실제로 정언명령 제시의 맥락이 아닌, 그것과 관련이 거의 없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롤즈도 이를 알고 있지만 칸트의 의지 테스트의 난점을 돌파할 방법으로 자신의 독창적 개념이 아닌 칸트 텍스트 안의 이론적 자원을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롤즈는 칸트의 정신을 따르는 한 칸트의 설명을 고치는 것은 께찮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김은희, 앞의 논문, 151-152쪽 참조.)

107) 『도덕철학사상의』, 276쪽.

108) 같은 책, 276-277쪽 참조.

## 2) 제2 정식: 인간성의 정식

롤즈는 일반적으로 ‘목적 자체 정식’으로 분류되는 정언명령의 정식을 ‘인간성의 정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가 이 정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 보면서, 그에 따라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전제되는 인간성에 관한 관념을 설명할 것이다. 롤즈는 두 번째 정식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언제나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타인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는 식으로 행하라.<sup>109)</sup>

본성상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는 하나의 목적이며 따라서 목적 그 자체이다. 그리고 모든 준칙에 있어 그러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자의적일 뿐인 모든 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작용한다.<sup>110)</sup>

(자신과 타인 모두를 포함한)합당하고 합리적인 모든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 그러한 존재가 너의 준칙 안에서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행하라<sup>111)</sup>

합당하고 합리적인 모든 존재에게 통용된 자신의 보편적 타당성을 자신 안에 동시에 담고 있는 준칙에 따라 행하라<sup>112)</sup>

세 번째 진술까지는 정식 자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와 타인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목적 자체로 대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롤즈는 네 번째 진술이 가장 인간성의 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진술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본성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 정념적 관심에서 나오는 준칙을 제한하는 조건이 된다.<sup>113)</sup>

이 밖에도 인간성의 정식에 관한 내용은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여러 방식으로 서술된다. 롤즈에 따르면 이 정식에서는 인격, 인간성(humanity)<sup>114)</sup>, 인간성

109) 『도덕철학사 강의』, 288쪽. (『윤리형이상학 정초』, 428-429쪽을 재인용.)

110) 같은 책, 291쪽. (『윤리형이상학 정초』, 439쪽을 재인용.)

111) 같은 책, 288쪽. (『윤리형이상학 정초』, 437-438쪽을 재인용.)

112) 같은 곳. (『윤리형이상학 정초』, 428-429쪽을 재인용.)

113) 같은 책, 292쪽 참조.

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함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표현되고 있다.<sup>115)</sup>

인간성이란 단지 이성의 힘<sup>116)</sup>, 사고의 힘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성의 힘이다. 칸트는 인간성을 우리를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해주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성적인 능력과 인간의 몸을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up>117)</sup> 따라서 인간성은 도덕적 성격을 의미하며 문화, 즉 예술과 과학을 통해 발전되는 능력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sup>118)</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성은 신의 선물같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간성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그 완성의 여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인지가능하다. 롤즈에 따르면 인간성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는 우리의 자연적 힘 중 특히 지성을 기를 의무이다.<sup>119)</sup> 지성이란 개념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힘, 예컨대 의무 개념이다. 둘째는 순수한 덕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지하는 의무이다. 순수한 덕의 태도란 행위의 동기가 도덕법칙에 대한 실천적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의무를 길러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간성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sup>120)</sup>

114) 인간성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같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성의 완성을 목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 자연적 힘 중 최고인 지성을 기를 의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이에 대한 설명은 같은 책, 298쪽 참조.)

115) 『도덕철학사강의』, 288쪽 참조.

116) 롤즈에 따르면 칸트는 인격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선택적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상이하고 복잡한 인격관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칸트는 충분히 이상적이며 합당하고 합리적인 행위자가 행위할 때 따를 만한 원리를 모든 대상의존적 욕구에 맞서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것이 도덕법칙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에 필수적이라면-이 가장 좋다고 롤즈는 주장한다. 이상적인 행위자인 인간은 자연적 세계에 속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롤즈는 칸트가 우리의 모든 욕구가 심리적 강도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그는 관점의존적이고 원칙의존적인 욕구의 강도와 그런 욕구들의 상응 원리가 이상적 행위자 안에서 갖는 규제적인 우선성 간의 구분을 주장한다. 이런 행위자의 특징은 관점의존적이고 원칙의존적인 욕구의 심리적 강도가 정확히 실천이성의 상응 원리의 규제적 우선성과 나란히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으로 이성적인 인격인 우리는 대상 의존적 욕구보다 높은 곳에서 그것을 평가할 능력을 가진다. 즉, 칸트는 우리를 선택적 의지를 지닌 이성적 존재로 판단한다고 롤즈는 생각한다.

117) 『도덕철학사강의』, 297쪽 참조.

118) 같은 곳 참조.

119) 같은 책, 299쪽 참조.

120) 롤즈는 인간성 개념에 대한 설명에 도덕감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도덕적 성향은 감정의 측면에 앞서 있는 것이며, 이는 도덕법칙과 도덕법칙이 감성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 우리에게 인식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성향은 인간성이 순수 실천이성을 통해 생동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도덕적 성향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의 동정심도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롤즈는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자비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이 의무를 인간성의 의무의 한 종류로 롤즈는 소개한다. 같은 책, 298-299쪽 참조.



칸트는 우리의 인격과 타인들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의 본성은 그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이성적 존재들도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한다. 모든 이성적 존재들은 서로의 이성적 본성을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원리가 된다. 롤즈는 이것과 관련하여 칸트의 거짓약속의 사례와 자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롤즈는 칸트의 정의의 의무와 덕의 의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먼저 정의의 의무는 정의로운 법 체계가 명시하는 의무로서 처벌과 보상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의무이다. 따라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충족이 가능하다. 또한 정의의 원칙에 의한 의무이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범위의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의무가 충족되는 방식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만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범위의 요구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법이 명시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이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의의 의무는 충족된다.

이와는 비교적으로 덕의 의무는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에 내적 동기나 자기법칙 수립성에 의거한 내적 요인으로 우리가 스스로 부과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덕의 의무는 윤리 원칙에 의한 것이므로 비교적 넓은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덕의 의무가 충족되는 방식은 도덕적, 자연적 완성을 일구어낸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전제적인 계획과 판단력, 양식이 요구된다. 121)

이러한 정의의 의무와 덕의 의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롤즈는 칸트의 거짓약속의 예를 먼저 설명한다.

칸트의 거짓약속의 예를 생각해보자. CI절차는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격에 의해 세워진 제한을 존중하는 행위의 기반이 되는 준칙만 받아들인다.<sup>122)</sup> 그런데 롤즈는 약속받은 이의 경우에 이성적 존재로서 약속한 이의 목적을 자신의 인격 안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받은 이가 약속한 이의 행위방식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거짓 약속의 예는 정언명령의 두 번째 정식에 어긋난다.

121) 같은 책, 292-296쪽 참조.

122) 같은 책, 300쪽.

자살의 예에 대해서도 정언명령의 두 번째 정식의 견지에서 설명가능하다. 인간성을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말을 잘 상기해보면 자기 자신조차도 수단으로서 치부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인격 안에 있는 도덕의 주체를 파괴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덕적 존재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도덕은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의적인 목적(자연적 성향의 목적)에 대한 단순한 수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자기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예지적 인간)과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성(현상적 인간)을 격하시키는 것이므로 자연적 경향성으로 인한 자살의 준칙은 통과될 수 없는 것이다.<sup>123)</sup> 롤즈에 따르면 칸트의 이러한 이론은 오로지 자연적 경향성에 기초한 이유로 인한 자살만을 배제한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우리는 덕의 의무가 명시한 책무적 목적을 성실하게 따르며 자신과 타인들의 인격 안의 인간성을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sup>124)</sup>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은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 촉발된 자살 행위를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롤즈는 칸트의 인간성의 정식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본성을 필연적으로 목적 자체로 간주한다는 것에서 인간의 주관적 목적을 정의한다. 이와같은 정의에 근거하여 롤즈는 주관적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타인의 이성적 본성을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하는 이유가 타당함을 도출하며, 필연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들은 서로 이성적 본성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객관적 원리를 이끌어낸다.

---

123) 같은 책, 304쪽.

124) 같은 책, 306쪽.

### 3) 제3 정식: 자율성의 정식과 목적의 나라

롤즈는 각 정식마다 행위자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제 1정식에서는 도덕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입장, 제 2정식에서는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 3정식에서는 행위자는 도덕적 요건을 직접 입법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롤즈의 생각에 칸트의 세 가지 정식의 주요 목적은 이성의 이념인 도덕법칙을 직관에 가깝게 놓는 것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직관과 감정에 가깝게 이해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정식을 통하여 설명한다.

앞서 제 1정식에서 자연법칙의 형태로서 우리가 도덕법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제 2정식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선 두 가지의 정언명령 정식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인간들이 모인 나라를 목적들이 모인 나라라고 확장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의 나라라는 개념은 도덕법칙의 정식에 따라 선형적으로 구성된다.<sup>125)</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칸트가 말하는 목적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 즉 도덕 공동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적의 나라는 공동의 도덕법칙을 따르는 각기 다른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개인들의 체계적인 결합이다. 목적의 나라와 상충되는 개념으로 자연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들 수 있다. 자연법칙이나 동물적 본성만을 가지는 존재의 공동체에서는 도덕적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칸트의 도덕철학에서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연법칙과 동물적 본성 외의 도덕법칙을 자기법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롤즈는 칸트의 앞선 두 정식의 확장으로 목적의 나라 정식을 자연적 구성으로 제시한다.

롤즈는 목적의 나라를 자연적 선이며 자연질서에서 실현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목적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그러한 목적의 나라에서는 자연적 사회 세계인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롤즈의 생각에 도덕적 세계는 자연적인 사회 세계이다. 왜냐하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우리가 각자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덕의 의무와 정의의 의무를 통해 행위하는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은 도덕적 사회세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sup>126)</sup> 이렇게 롤즈는 도덕법칙의 자연의 작용 원리를 방해하지 않고 예지계

125) 『도덕철학사강의』, 472쪽 참조.

126) 같은 책, 473쪽 참조.

의 형식을 감성계(자연계)에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합리적 존재의 감성적 본성의 존재방식은 자연과 독립적이며 순수이성의 자율성에 속한 도덕법칙에 놓여 있는 방식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목적의 나라의 이상을 도덕법칙의 구성된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롤즈의 구성주의적 해석이다.<sup>127)</sup>

여기서 롤즈는 제 3정식에 대한 칸트의 세 가지 변형적 진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의지가 보편적 실천이성에 합치하게 되는 최상의 조건은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의지는 모든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의 의지라는 이념이다.

우리의 법칙 수립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준칙은 자연의 나라인 가능한 목적의 나라 속에서 정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서 동시에 (모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인격에게) 작동해야만 하듯이 행위하라.<sup>128)</sup>

롤즈는 위와 같은 칸트의 진술을 근거로 자율성의 정식의 핵심 부과 내용을 파악한다. 먼저 우리는 모든 정식이 우리를 스스로 보편적 입법을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을 간파해야 한다. 또한 입법할 때 우리는 가능한 목적의 나라의 성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우리는 가능한 목적의 나라의 성원으로서 보편적 도덕법칙을 입법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정언명령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가 자율성의 개념이다. 앞서 합리적 직관주의나 형이상학적 완전주의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자율성은 자기 자신의 법칙을 스스로 세운다는 ‘자기 법칙 수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을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 의한 법칙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타율성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성적 요구들을 근거로 도덕적 법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

127) 같은 책, 474쪽 참조.

128) 같은 책, 318-319쪽.(『윤리형이상학정초』, 430-440쪽을 재인용.)

연적인 본성에 맞춰서 의무나 도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심리적 반발이나 자연적 경향성에 의거한 저항을 억누르고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기 법칙 수립성, 즉 자율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롤즈에 따르면 CI절차에 의해 자신의 개인적인 준칙을 보편법칙의 관점으로 타당성을 점검하여(정확히 말하면 단계(2)에 나타난 일반적 지침에서 단계(4)에서 조정된 사회 세계를 입법하는 과정까지를 점검하여) 도덕법칙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들이 신적인 존재나 외부의 이미 상정되어 있는 도덕가치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이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준칙을 점검하고 자신의 도덕법칙을 스스로 수립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율성의 정식이 가지는 의미이다.

## 5. 결론

우리는 롤즈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합리적 직관주의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합리적 직관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의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도덕법칙의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실천이성에 의해 도덕법칙의 구성적 절차를 도출해야 한다는 자기입법적 개념(자율성 개념)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에 합리적 직관주의는 타율성을 띠고 있다. 또한 합리적 직관주의는 독립적인 도덕법칙이 이미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의 인간관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을 지지하는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리적 직관주의의 인간관은 비교적 성긴(sparse)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는 『정의론』의 실패 요인을 도덕과 정치의 구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도덕적 구성주의와 정치적 구성주의를 구분하는 것에 몰두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롤즈가 칸트의 도덕철학을 구성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의 의미와 특징을 드러내기 위하여 롤즈 자신의 이론인 정치적 구성주의와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밝혀냈다.

이어서 롤즈는 칸트의 도덕철학에 대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CI절차라는 장치를 도입하는데, 이러한 CI절차의 의미와 역할은 칸트의 정언명령의 현실적 도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롤즈가 칸트의 정언명령 정식에 대하여 3가지로 분류하여 해석해낸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주관적인 준칙을 보편법칙으로 이끌어 내는 법을 최대한 직관에 가깝게 놓기 위한 절차로서 CI절차가 가지는 효용성을 고찰했다.

롤즈는 칸트 도덕철학의 내용을 전통적인 칸트 해석의 방식과는 다르게 구성주의적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도덕 철학과 정치철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롤즈의 해석은 롤즈 스스로가 고안해낸 개념들, 즉 특수한 가언명령, CI절차와 같은 개념들이 함께 서술되기 때문에 칸트 본연의 도덕철학을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은 롤즈가 칸트의 도덕철학을 구성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칸트의 도덕철학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칸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도덕적 메시지를 더 현실감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를 제공했다는 것을 『도덕철학사상의』를 근거로 밝히고자 하였다.

구성주의자들은 수학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절차적 표현 장치에 의해 그들의 올바른 추론의 가능한 모든 기준들을 결합하고 검토하려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판단의 합당성과 건전성은 올바른 절차에 의해 정확하게 따랐는지, 그리고 참된 전체에만 의존하여 나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절대주의적인 선관(善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절대주의적 선관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구체적 생활 세계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롤즈의 칸트 도덕철학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은 우리의 실제 생활 세계에 도입할 수 있는 CI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칸트의 도덕철학의 내용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법, 사회, 도덕에 대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롤즈의 저서

- 바바라 허먼 엮음, 김은희 옮김, 『도덕철학사 강의』, 이학사, 2020.
-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03.
- 장동진 외 옮김, 『만민법』, 동명사, 2019.
- 장동진 옮김, 『정치적 자유주의(증보판)』, 동명사, 2016.

### 2. 칸트의 저서

- 백종현 옮김,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2.
-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05.
-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 3. 단행본

- 아마르티아 쉐, 이규원 옮김,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 날개, 2019,
- 오토프리트 회페, 이상현 옮김, 『임마누엘 칸트』, 문예출판사, 1997.
- 이석호, 『근세·현대 서양윤리사상사』, 철학과 현실사, 2010.

### 4. 학위논문

- 서현경, 「J. Rawls 정의론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5. 학술지



강병호, 「칸트적 의무론:인본주의적 가치와 옴의 우선성」, 『범한철학』 84집, 2017:197-220.

강병호, 「정언명령의 세 주요 정식들의 관계」, 『철학』 120집, 한국철학회:53-74.

강준호, 「칸트적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학연구』 11집, 2007:199-224.

김석수, 「실천철학에서 칸트와 롤즈의 관계에 대한 비교 분석」, 『칸트연구』 8집 1호, 2001:114-142.

김은희, 「롤즈의 해석은 칸트 윤리학을 왜곡하는가」, 『철학연구』, 118호, 2017:143-175.

김정주, 「이성의 사실과 도덕적 구성주의의 정당화」 『칸트연구』 21집, 2008:163-197.

노영란, 「롤즈 이후의 칸트적 구성주의」, 『윤리연구』, 1집 106호, 2016:35-62.

맹주만,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칸트연구』 20집, 2007:117-150.

서운발, 「J. 롤즈의 칸트적 해석에 대하여」, 『철학논총』, 69집, 2012:187-206.

이종일, 「롤즈 정의론에서의 ‘칸트적 해석」, 『사회계약론』, 한국사회·윤리연구회편, 철학과 현실사, 1993:208-247.

홍성우, 「도덕원칙에 관한 롤즈의 정치적 구성방법과 그 특징들」, 『사회사상연구』 6집, 1996:75-105.

황경식, 「롤즈에 전해진 칸트의 유산」, 『철학연구』, 1995:423-447.